

# SK에너지, 자원개발 강화로 수익 확대

## HMC증권, 국제유가 100-130달러 전망 ... S-Oil도 안정적 이익 창출

HMC투자증권은 9월10일 정유 관련주에 대해 국제유가가 바닥권에 진입함에 따라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다.

소용환·최종경 연구원은 “정유업종에 대해 <비중확대> 의견을 제시한다”며 “7월 이후 국제 원유가격은 고점 대비 25% 하락해 배럴당 100-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바닥권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-130달러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”고 내다봤다.

또 “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포스코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가가 급락한 SK에너지에 대해 강력매수(Strong Buy) 의견을 제시하며 정유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한다”고 밝혔다.

그리고 “2008년 4/4분기부터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정제마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원개발(E&P)사업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이익증가가 다른 부문의 이익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고, 대우조선해양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”고 설명했다.

아울러 “S-Oil에 대해서도 <매수>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데, 높은 고도화 비율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이익창출로 고배당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”며 “국제유가가 바닥권에 진입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정유주식을 매수할 적기로 판단된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9/10>